

# 부패가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성장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박나민<sup>1)</sup>, 정석균<sup>2)</sup>, 임형록<sup>3)</sup>

## Impact of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cusing on Sub-Saharan Africa

Namin park<sup>1)</sup>, Sukkyun Chung<sup>2)</sup>, Hyung Rok Yim<sup>3)</sup>

### 요 약

본고는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부패수준과 규제 정도가 국가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다당제 안착과 안정된 정치적 상황은 다국적기업이 아프리카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인이 되었다. 아프리카 FDI 유입액은 2000년 100억 USD에서 8년만에 590억 USD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록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로 440억 USD로 감소되었으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며 2012년에는 다시 500억 USD 수준으로 회복하였다[27].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가난과 빈곤에 직면해 있다.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 성장에 결합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정부의 거버넌스 문제와 횡령, 정치적 부패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남부, 중앙, 서부, 동부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하는 사하라사막이남 지역의 25개국에 대한 패널분석한 실증분석하여 부패와 규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핵심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부패, FDI, 경제규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corruption levels and regulations affect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when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made. The multi-pronged settlement of sub-Saharan Africa and the stable political situation have been the driving force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invest abroad in Africa. African FDI inflows increased from USD 10 billion in 2000 to USD 59 billion in eight years. The annual growth rate is more than 20%. Despite the drop in investment due to the financial crisis

Received (December 11, 2018), Review Result(January 23, 2019)

Accepted(February 27, 2019), Published(March 30, 2019)

<sup>1)</sup>(The 1st Author) Ph.D. Student, The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E-mail: mariririn@hanyang.ac.kr

<sup>2)</sup>(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the College of Policy Science,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E-mail: chungphd@hanyang.ac.kr

<sup>3)</sup> Professor, The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E-mail: hryim@hanyang.ac.kr

in 2008, it was reduced to USD440 billion, but the investment in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began to recover in earnest and returned to USD50 billion in 2012. [27] Yet, It faces poverty and poverty. There are many possible causes, but it is difficult to combine with economic growth because of government governance problems, embezzlement, and political corrup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anel analysis of 25 countries in the sub-Saharan region covering the southern, central, western, and eastern Africa regions and examines how corruption and regulation affect the economic growth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ub-Saharan Africa Respectively.

Keywords: SSA, FDI, Corruption, Regulation

## 1. 서론

### 1.1 Background

2000년 이후부터 아프리카는 연간 5% 이상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제 성장세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경제규모는 2000년 3,000억 USD에서 2010년 1조 USD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28]. 지난 10여 년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괄목한 성장을 보였다. 2001~2010년 사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전 세계의 10개국에는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가나 등 6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되었다. 1990년대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2.2%였으나, 지난 10년간 실질 GDP 성장률은 2005~2006년에는 4%, 2007년에는 6.6%를 기록하였다[4].

수년간의 독재정부와 내전 등으로 2010년까지는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하지만 다당제 안착과 더불어 안정된 정치적 상황은 다국적기업이 아프리카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 아프리카 FDI 유입액은 2000년 100억 USD에서 8년만에 590억 USD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록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로 440억 USD로 감소되었으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며 2012년에는 다시 500억 USD 수준으로 회복하였다[27]. 2010년 이전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FDI 유입은 자원획득을 겨냥한 자원추구형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시장과 인프라개발을 겨냥한 시장추구형투자와 효율추구형 투자로도 전환되고 있다[26]. 이러한 FDI의 유입은 아프리카 신흥 중산층의 증가는 식품, IT, 관광, 금융 등의 기업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FDI 유입에서 중국을 대표로 한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선진국의 투자감소 이후, 개발도상국의 FDI 비율이 높아져 2013년에는 50% 이상의 수준이 되었다. 이들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원을 겨냥하는 투자를 하였지만,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를 겨냥한 투자를 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정리하고, 본고의 실증분석에서 분석할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현지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3절

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과 통계자료의 특성을 살펴본 이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도와 경제적 규제의 정도가 해외직접투자의 GDP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겠다. 마지막 4절에서는 전체내용을 요약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겠다.

## 1.2 해외직접투자와 경제 성장, technology spill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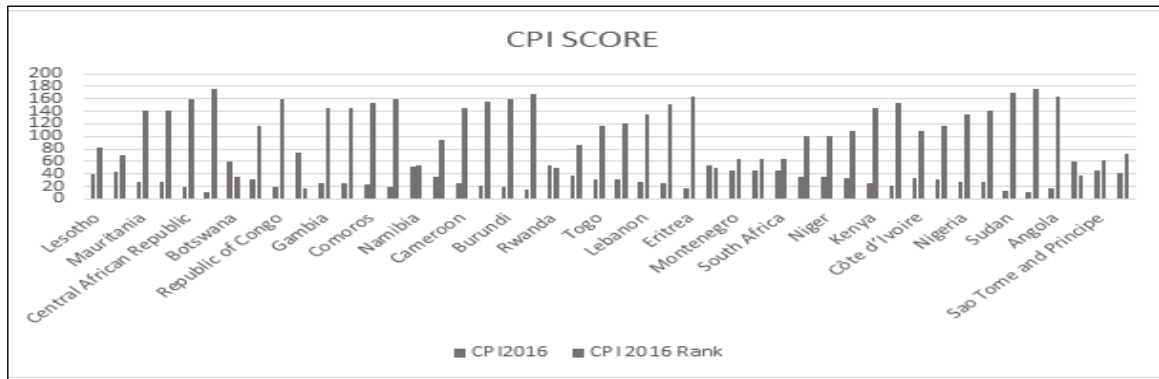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외국자본은 현지국(host country)에 유입되어 현지국의 경제상황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선진기술(advanced technology)은 기업의 기업특유의 우위(firm specific advantage)의 기본이 되는 지적자본과 기술로 구성된다. 선진기술은 기업 관점에서의 기업우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FDI로 인한 현지국의 경제적 발전 사이의 관계에도 기여를 한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는 현지국(host country)에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4], [8], [13], [16], [19], [21]. Selma 외(2013)는 FDI유입의 현지국(host country)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분류해서 제시하였다. 즉, FDI유입은 현지국에 자본, 과학기술, 기업 경영자원 등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자본이 부족하지만 노동력이 풍부한 현지국에 고용창출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현지 국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현지국의 지역공급회사들이 고용창출을 하고, 이들에 의한 소비활동이 생기면서 간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4]. 또한 Lipsey(2002)는 FDI유입으로 인한 현지국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원재료의 수출에서 비교적 하이테크 제품들의 수출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FDI유입은 현지국의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외국기업에 의한 현지시장이 잠식되면 이로 인한 현지국기업의 매출감소와 고용감소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갖게 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기술력을 갖게 되는데, 이들과 경쟁하는 현지국의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도산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19]. 국제수지에서서도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등으로 단기적인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 1.3 Main Issue,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부패

앞서 언급한 경제성장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FDI 유입으로 인한 스펠오버(technology spillover) 및 경제과급효과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이전효과가 인적자본의 질이 높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때도 있으며, 고용창출효과 역시 대규모 장치산업 및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을 참조한다면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투자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본국으로 송금이 되어 현지인들의 소득향상의 효과를 크지 않다. 고용되는 사람들 중에서 미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투자를

통한 인프라가 확대되어 사회 인프라 정비효과는 나타나지만, 해외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많다. Kochhar와 Rakesh(2015)는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10-20달러를 벌며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6%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 자회사인 EIU 캔백(EIU Canback)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아프리카인의 90%가 하루에 10달러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2014년 10-20달러를 버는 중산층은 4.4%에서 6.2%로, 하루에 20-50달러를 버는 중상층은 1.4%에서 2.3%로 늘어났을 뿐이다. 이와 같은 빈곤의 원인으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매우 불평등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FDI 등의 유입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패로 인해 현지인들의 부는 증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성장율과 FDI 유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패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 NGO의 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부패지수 (2016)

[Fig. 1]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Score of Subsaharan Africa countries (2016)

## 2. FDI 와 부패

### 2.1 부패

최근 해외직적투자에 대해 주목을 끄는 요소는 현지국(hostcountry)의 부패이다.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주로 FDI와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현지국의 부패수준, 국가위험도, 환경규제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OECD같은 국제기구에서는 투명성을 다방면의 협상에 있어서 주제로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국가 주도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가 부패를 조장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부패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는 행위를 부패로 정의한다. 법학에서는 법규범에서 벗어난 공무원의 행동을 그리고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모두 부패로 보고 있다[17]. 그러나 OECD에서는 간단히 부패를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분의 지위나 권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the abuse of public or private office for personal gain)으로 정의한다. 공적권력은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에서의 역할이나 지위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 추구 역시 부패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 한편 부패의 궁극적인 비용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 경제적 비용은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의 감소, 투자위축, 국제무역의 불안정이나 가격 불안정, 생산성 하락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부패가 심각한 정부나 체제는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더 나아가 실업률이 높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에서의 부패는 정부불신 정치 불안 그리고 범죄의 만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23]. 다수의 연구들은 부패가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같이 경직된 체제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부패는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 2.2 부패와 청렴관리, 경제규제

부패로 인해 경제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공식사회에 부패 척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청렴관리(integrity management)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효율성 관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반부패노력에 투입되는 비용은 명확하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청렴성과 행정효율성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한 인식도 존재한다. 이는 부패가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나[9],[18] 부패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아니라는 공공경제학적 시각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3]. 기업활동을 지배하는 경제규제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North(1990), Acemoglu 외(2001)는 과거에 좋은 정치·경제 제도를 갖고 있던 국가는 오늘날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제도는 부의 축적과 장기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Dawson(2006)은 대규모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와 투자와 장기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광의의 규제는 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는 또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비율을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규제는 민간투자와 음의 관계에 있었지만 공공투자와 양의 관계가 있었다. 즉 오히려 규제를 완화했을 때, 투자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의 증가효과가 발견된 것이다. Loayza et al.(2005), Djankov et al.(2006), Dawson(2006)도 일관성 있게 규제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Djankov et al.(2006)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규제지수를 이용하여 기업규제의 강화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3. 분석모형 및 통계자료

#### 3.1 분석모형

본고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해외직접투자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투자대상국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 자료들을 사용하여 연도별 통계자료를 획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관측치수의 손실로 49개의 사하라이남 국가 중 25개국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프리카투자개발은행 ADBG(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의 기준에 의한 분류에 따라 동부지역의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와 서부지역의 탄자니아, 우간다, 카메룬, 코모로스 그리고 중부지역의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콩고 마지막으로 남부지역의 앙골라,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를 표본국가로 하였다. 한편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경제적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사용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석유와 광업 등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반영하여 GDP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였다 (Resource). 무역의 정도(수출과 수입의 합)를 통해 현지국 경제의 개방정도를 측정한 개방성(Openness)과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는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 높은 출산율로 인해 젊은 노동 인구가 많다는 점을 통한 인적자원(Human resource)변수를 포함한 핵심 결정요소들을 설정해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투자대상국의 기술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특허 신청, 취득건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Innovation). 마지막으로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경제 규제(Regulation)의 현지국의 경제 성장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할 것이다. 투명성과 경제규제는 CPIA 지수(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를 활용하였다. CPIA지수는 16 개 기준으로 국가별로 1 (낮음) ~ 6 (높음)의 등급이 매겨 비즈니스 규제 환경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나머지 변수들은 세계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3.2 Equations

$$\ln GDP_{i,t} = \beta_0 + \beta_1 \ln FDI_{i,t} + \beta_2 \ln ODA_{i,t} + \beta_3 \ln RES_{i,t} + \beta_4 \ln OPE_{i,t} + \beta_5 \ln LAB_{i,t} + \beta_6 \ln \in N_{i,t} + \beta_7 \ln REG_{i,t} + \beta_8 \ln FDI_{i,t} * REG_{i,t} + \beta_9 TRA_{i,t} + \beta_{10} \ln FDI_{i,t} * TRA_{i,t} + \epsilon_{i,t}$$

$GDP_{i,t}$  = t년도 i국의 1인당 GDP,  $FDI_{i,t}$  = t년i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량,  $ODA_{i,t}$  = t년도 i국이 받은 공적개발원조,  $RES_{i,t}$  = t년도 i국의 GDP 대비 자원의존도,  $OPE_{i,t}$  = t년도 i국의 교역량,  $LAB_{i,t}$  = t년도 i국의 노동자원,  $\in N_{i,t}$  = t년도 i국의 과학저널등재건수,  $REG_{i,t}$  = t년도 i국의 경제규제정도,  $TRA_{i,t}$  = t년도 i국의 투명성

[표 1] 상관분석 결과

[표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상관관계											
GDP	9.96	0.04	1								
FDI	6.96E+08	1.14E+08	0.38**	1							
INN	1.82	0.05	0.67**	0.42**	1						
REG	3.09	0.03	0.08	0.13*	0.40**	1					
TRA	2.74	0.04	0.00	0.05	0.02	0.60**	1				
ODA	8.78	0.03	0.71**	0.37**	0.63**	0.32**	0.19*	1			
RES	14.62	0.89	0.33**	0.10	-0.09	-0.52**	-0.34**	0.03	1		
OPE	71.33	1.63	-0.00	-0.02	-0.29**	-0.43**	-0.15*	-0.25**	0.57**	1	
LAB	6.67	0.03	0.85**	0.36**	0.71**	0.13*	-0.12 <sup>+</sup>	0.81**	0.18 <sup>+</sup>	-0.22**	1

+ p<0.1, \* p<0.05, \*\* p<0.01

#### 4. Empirical Results

모형1에 의하면, 표본국가들의 해외원조, 자원, 무역개방도, 노동력 등의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열에 있는 모형2는 모형 1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에 FDI라는 독립변수를 추가한 회귀식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3에서는 유의한 양수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기술혁신성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한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모형3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 외에도 경제제재와 투명성을 모형4와 모형6로 포함시켜 회귀분석 하였다. 경제제재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투명성은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모형5와 모형7에서는 FDI에 대한 경제제재와 투명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4에서 경제적 성장과 무관해 보였던 경제제재의 효과는, FDI를 통해 0%의 유의성을 갖게 되었다. 제재의 효과가 0.14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1.4%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경제 성장 조건이 동일할 때, FDI를 한다면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형5에서는 유의한 양의 수로 추정되었던 투명성이 모형7에서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투명성이 FDI로 인해 오히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 향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직접투자 시 투명성이 경제성장과 1.8%의 반비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Table2] Result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Model7
ODA	0.118+	0.098	0.088	0.063	0.183**	0.033	0.017
	0.091	0.167	0.189	0.369	0.004	0.613	0.787
Resource	0.005*	0.005*	0.007**	0.008**	0.007**	0.008**	0.007**
	0.011	0.013	0.000	0.000	0.000	0.000	0.000
Openness	0.004**	0.003**	0.003**	0.003**	0.004**	0.003**	0.003**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Laborforce	0.839**	0.827**	0.663**	0.684**	0.564**	0.680**	0.67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DI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51	0.525	0.536	0.000	0.004	0.000
Innovation			0.187**	0.173**	0.147**	0.186**	0.202**
			0.000	0.000	0.000	0.000	0.000
Regulation				0.046	0.098**	-0.032	-0.042
				0.276	0.008	0.443	0.31
FDIxRegulation					0.143**	0.119**	0.164**
					0.000	0.000	0.000
Transparency						0.182**	0.149**
						0.000	0.000
FDIXTransparency							-0.131**
							0.008
Constant	3.003**	3.255**	4.076**	4.013**	3.588**	4.002**	4.25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l	-33.1472	-31.1787	-18.8664	-18.2499	13.49003	28.07097	31.75371
N	225	225	225	225	225	225	225
aic	76.29443	72.35741	49.73286	50.49972	-10.9801	-38.1419	-43.5074
bic	93.37493	89.43791	70.22947	74.41242	16.34875	-7.39703	-9.34641

+ p<0.1, \* p<0.05, \*\* p<0.01

#### 4. 결론

본고에서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현지국의 경제성장효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투명성과 경제규제와 같은 기업의 경영여건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자대상국의 ODA, 자원의존도, 개방성, 노동력 등의 요인 이외에도 혁신성도 현지국의 경제 성장에 높은 정도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명성은 경제성장에는 명확한 영향을 주지만, 경제제재는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투자국이 해외

직접투자의 유입을 받았을 때, 규제와 투명성 모두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될 때의 기업규제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반대로 투명성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할 시 행정절차들을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부패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요구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총량적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동부, 서부, 중부,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 References

- [1]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2001), Vol.91, No.5, pp.1369-1401.
- [2]Africa's middle class Few and far between, The Economist, (2015, October 22) <https://www.economist.com/news/middle-east-and-africa/21676774-africans-are-mainly-rich-or-poor-not-middle-class-should-worry>.
- [3]Becker, G. S. and Stigler, G. J., Law Enforcement, Malfeasance, and Compensation of Enforcer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1974), Vol.3, No.1, pp.1-18.
- [4]Bigman, David, Poverty, Hunger, Democracy in Africa: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Democracy in Cementing Multiethnic Societies. Palgrave: London (2011).
- [5]Blomstrom, M. and A. Kokko,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Spillover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998), Vol.12, pp.247-77.
- [6]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7, (2008, December 14).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perceptions-index-2016>.
- [7]Douglass C. North,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0), Vol.5, No.1. pp.97-112.
- [8]Hufbauer, Gary C. and F. M. Adler, Overseas Manufacturing Investment and the Balance of Payments, Tax Policy Research Study No.1 (1968).
- [9]Huntington, S.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8).
- [10]JW Dawson, Regulation, investment, and growth across countries, Cato Journal. (2006), vol.26, No.3, pp.489-509.
- [11]Kochhar and Rakesh, A Global Middle Class Is More Promise than Reality, LIS Working Paper Series. No.641 (2015).
- [12]Leff, N. H.,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964), Vol.8, pp291 - 303.
- [13]Lipsey, Robert E., Home and Host Country Effects of FDI",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9293 (2002).

- [14]Loayza, N. V., A. M. Oviedo, L. Serven, The Impact of Regulation on Growth and Informality: Cross-Country Evidence, Mimeo (2005).
- [15]Monique Nuijten, Gerhard Anders, Editor, Corruption and the secret of LAW : a leg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Ashgate Publishing, London (2007).
- [16]Moura, Rui and Rosa Forte,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Host Country Economic Growth -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FEP Working Papers No.390 (2010).
- [17]M. Nuijten, Gerhard Anders, Corruption and the secret of law : a leg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Law, justice and power, Aldershot, Hants, England ; Burlington, VT : Ashgate, c2007 (2007).
- [18]Nye, J. 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67), Vol 61, No.2, pp.417-427.
- [19]Ram, R. and Zhang, K.,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ross-Country Data for the 1990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2), Vol. 51, No. 1, pp.205-215.
- [20]Samuel Mondays ATUOBI, Corruption and State Instability in West Africa: An Examination of Policy Option, KAIPTC Occasional Paper, December 2007 (2007).
- [21]Selma and Kurtishi-Kastrati,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for Host Country's Economy, Europ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2013), Vol.5, No.1, pp.26-38.
- [22]Simeon Djankov, Caralee McLiesh, Rita Maria Ramalho, Regulation and growth, Economics Letters. (2006), Vol.92, No.3, pp.395-401.
- [23]Ssmuel Atuobi, Corruption and State Instability in West Africa: An Examination of Policy Options, KAIPTC Occasional Paper (2007).
- [24]Susan Rose-Ackerman,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Public Choice, 2000, vol.104, No.1, pp.196-199
- [25]UNATAD, Investment and the Digital Economy,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2017).
- [26]UNCTA, Regional Trads: Africa,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 in the SDGs: An Action Plan,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4).
- [27]UNCTAD, Regional Trends: Africa,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Global value chains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3).
- [28] World Bank. Africa's Pulse, 2013 October, (2013), Vol.8.